

□ 노동법 개정투쟁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투쟁이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정부와 신한국당의 당정회담에서 연내에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키로 합의하면서 노동법 개정문제는 남은 하반기 동안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과 노동운동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신문은 15일 대표자회의를 가지고 전국적 총파업 불사 방침을 밝힌 노동운동진영의 앞으로의 방향을 알아 보았다. (편집자)

과 탁 성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집위원)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10일 있었던 정부와 신한국당의 당정회담에서는 연내에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14회에 걸친 노가위 회의를 통해 다소간 지루하게 비쳐왔던 노동법 개정문제는 이제 현실의 문제로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력강화의 관점에서 노동법 개정문제를 접근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전경련은 이른바 '3급 절대반대, 3제 완전철폐'의 목소리를 높이며 기세를 돋우고 있다. 노동운동진영도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대열진비에 들어섰다. 민주노총은 11월 15일에 있었던 노동법개정투쟁본부 제5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부가 올해 노동법 개정을 또다시 유보하거나 전경련등 재벌의 요구대로 개악안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12월 4일 9백30여개

산하 노조의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노총도 사상 처음으로 12월 중에 전국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노동법 개정은 '논의의 시기'에서 '행동의 시기'로 이행한 셈이다.

논의에서 행동의 시기로

그렇다면 현재 노동운동 진영에서 분명히 해야 할 목표와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로 그 어떠한 형태의 3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노동법개정이 논의되면서 바터식 노동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그것은 이른바 3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견해에 대한 우려였다. 가령 변형시간 근로제

대한 공격이 된다는 점이다. 3급의 완전철폐 특히 민주노총의 합법성취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사안이지만 노동현장이 방어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종이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로 대중의 단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쟁형태가 잡혀야 한다. 노동법 개정투쟁은 사실 엄청난 대중투쟁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성과도 거두기 어렵게 현재의 상황이다. 구체적인 투쟁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단위사업장, 산별연맹, 민주노총중앙간의 긴밀한 협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압력과 선언 수준으로 대중 동력을 가두

노동법 개정투쟁은 그 자체로도 노동운동 지향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만큼 총력투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중추역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단결과 투쟁의 조건을 확장하고 방어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노동현장을 방어하고 대중적 단결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면 이는 직접적 성과뿐만 아니라 산별노조건설을 위해 필요한 대중적 토대의 강화이자 전국적 단일사안을 고리로 한 정치적 경험의 기회이기도 하다.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운동의 전개라는 과제를 잊지 않는다면 노동법 개정투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좀더 냉철할 수 있고 좀더 원칙적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정치운동

정세는 대립하는 주체의 힘관계에 의해서 변화한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현전세도 노동과 자본간의 역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며 변화할 것이다. 합법화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경계하면서 노동현장의 방어와 대중적 단결의 강화를 향해 투쟁한다면 노동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는 새로운 전선의 조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이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프랑스로 노동자들의 구호는 노동법 개정투쟁을 향해 행동의 조직화를 모색하는 이 시기에 다시 되새겨 볼만한 귀결이 될 것이다.

97년 투쟁의 성격 규정

셋째로 노동법 개정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현장취재 민주노총창립 1주년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10만여명 참가 노동법개정투쟁 다짐



▲지난 10일 오후2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 대회에는 노동자와 시민 10만여명이 참가했으며 노동법 개정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창립 1주년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주최로 이번 달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다. 20여개의 민주노총산하노조 기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노동자와 시민 10만여명이 참가했으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투쟁결의문 낭독, 연대사, 대중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영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법이 삼급단체의 복수 노조 허용을 막거나 제3자 개입금지 유지를 등 사용자 측에 치우친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전국적인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회참가자들도 민주노총 산하 대규모 사업장과 전문노련 산하 정부출연 기관, 서울지하철등 전국 3백36개 노동조합 35만여 노동자들의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파업결정권을 권영길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경 6천여명이 대회장 주변에 배치되어 대학생들의 집회감염을 막았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박기남 기자)

사회단신

경원대 무기한 농성 총장 퇴진·학원자치권 요구

경원대 총학생회장 위영석씨등 경원대생 3명이 지난달 28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경원대는 그간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 왔으며 지난 8월 연세대 사태이후로는 학교측이 협상마저 거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학생들의 농성도 해산되었다.

농성자들은 김원진 총장 퇴진, 학원자치권 인정, 징계·구속·수배 철폐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구속을 각오를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강단시론

주 서 령

(아동주거학과 교수)



집은 하루의 피로를 덜고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이며, 가족이나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산다'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집은 생산공동체와 협동공동체의 장으로서 사람의 생활을 담는 곳이기도 한 민족집단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며 동시에 생활문화를 산출하는 요람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집은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적금통장 같은 경제적 가치로 전락되었다. 사람들은 이 적금통장이 황금알을 낳아 주길 기대하며 '집'에 대한 꿈을 접어놓는다.

획일적이고 불분명한 상자작의 아파트, 거주인의 직업, 가족 구성, 생활양식과는 무관한 평면계획,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고즈넉한 남산의 실루엣은 끝도 없는 아파트의 병풍으로 가리우고, 웅기충기 집들이 밀집해 있던 우리의 산동네는 어느날 붉은 흙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다가 이내 콘크리

대감이 없는 '무리'의 사회가 어떠한 부작용을 낳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고려한 주거계획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설계와 건설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만들기의 주체는 우리

이상적인 삶을 집 안에 담기 위해선, 집만들기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남이 좋아한 집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초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초고층 아파트가 사고팔기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 아닌 나에게 적합한 생활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물론 자신이 삶을 들고 땅치를 들고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당당히 요구해야 할 때가 왔다. 양으로만 그리고 단지 경제적 상품으로만 물건

삶이 있는 집 만들기

트 계단으로 바뀌고 이 계단위에 서 있는 것이 안타까워 보일 정도의 높은 아파트들이 산을 뒤덮어 버린다. 이 모두 집과 땅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자초한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은 땅이 넉넉한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다르지 않다. 불분명한 아파트 상자는 예외없이 우리 산천을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 지방의 건축심의위원회 이러한 높고 삭막한 아파트 대신에 낮고 오밀조밀한 저층 공동 주거단지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우리도 서울과 같은 아파트에 살 권리가 있다는 지역인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획일적 상자작, 아파트

이러한 획일적인 아파트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집인가? 편리하긴 하지만 웬지 마음의 빈 구석을 채워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집이란 모퉁이기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삶은 사람들의 다양한 느낌을 쌓아서 형성되는 것이며, 집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집들은 모여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가진 '우리'의 마을에서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뿐인 '무리'의 마을로 개념을 변화시켰다. 역적 유

을 공급해왔던 주택산업의 정책은 이미 그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20년, 조로하게 될 고밀도의 초고층 아파트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집만들기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집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화초키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라면 당연히 양지바른 곳에 화분을 놓고 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어린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차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나눌 수 있게 할 수 있는 단지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기원한다면 공동의 생활을 만들어나 갈 수 있는 우리의 골목길 같은 공유공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집에 체념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안의 여러 요소들을 체념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철저히 추구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스스로 원하는 집을 갖게 될 것이며 더불어 이러한 요구가 사회의 건축 환경과 문화를 바꿀게 될 것이다. 서양의 도시계획의 역사에 있어서 방법론의 전환을 갖게 한 전연도시이론은 도시계획이나 건축가가 아닌 법률가이고 사회개혁 운동가인 한시민에 의해 제안되고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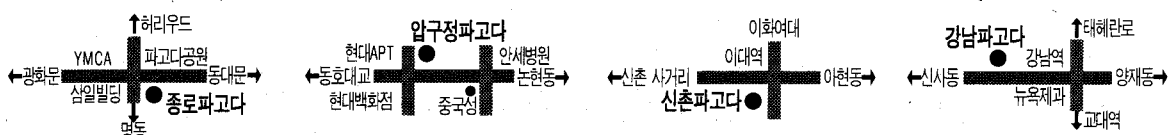
Here is the PAGODA!!

지구촌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 세계를 우리의 인재로 !

이 지구의 끝 남극점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극기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올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 DO' 정신은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올려 놓을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27년 동안 우리나라와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은 처지 PAGODA는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PAGODA 종로 : 274-4000 PAGODA 압구정 : 3442-4000 PAGODA 신촌 : 706-4002 PAGODA 강남 : 501-4002



英作文法 1200題

英作文法 1200題

英作文法 1200題

컴퓨터

본원은 국내 최초의 정보처리 전문 교육기관임

개원30년 · 방학개강 : 1월 6일(월) / 2월 3일(월)

정규전원(종합, 단과) 및 특별과정

- 정보처리정규전문과정
- 정보처리기사자격취득특강
- C언어, Visual C++ 특별과정
- Auto CAD, Graphic 전문과정
- OA 정규 및 특별과정(일반 및 각 단체취득교육)
- MS-DOS, WP, Windows 95, Excel, P.P., Visual Basic, Auto CAD
- 81년 3월 국내 최초로 개설된 본원 OA과정의 역사적 전통성 및 전문성
- C언어, Visual C++ 특별과정(기사 및 실무능력 필수)
- C언어 : 대형컴퓨터 및 PC 프로그래밍 / 활용시 중추언어로 인기특점 V.C++ : C언어 이수자의 전문 Windows 프로그래밍언어 / 전공자 필수
- Visual BASIC 특별과정(매월 초 개강, 2개월 완성)
- 강력하다! 절대! 초보자도 단 두달에 Win 95 프로그래머가 된다
- 중점 : 인사, 회계, 자료관리 등 프로그래밍 개발 기법 숙지 및 실무활용
- 자료구조 및 전산수학 특강(기사시험대비)
- 비전공자 대상, 단 1개월에 필기 합격 자신감부여(과목별 특강)
- 특강 : 자격시험전반 전문강사진, 기술 및 매체문제 핵심종결, 모의시험
- 정보처리기사(1,2급) 시험대비종합특강
- 기간 : 1.6~2.1 18:00~21:30 (평일), 토·일·월
- 특징 : 출제경향과목과 전문강사진 교수진 직강, 핵심종결의 확실부여
- Auto CAD 전문과정(686 PC, 17")
- 매월 초 개강, 철저한 실무적용개념지도방식, 초·중·고급별에 맞춰
- 중점 : Auto CAD, LISP, 3D Studio, Graphic 설계시 자신감부여
- 본원은 교육이념상 문맹을 안둔 공인석전통유지
- 원격·파고다공원 건너편 종로2가 네거리(동학관 빌딩)
- 상설 및 등록처 : 274-6911~5(대), FAX : 274-6915

일본유학

赤門會日本語學校

AKAMONKAI JAPANESE LANGUAGE SCHOOL

東京都荒川區 東日暮里 6-39-12 東京驛 15分(電線)

아까몽가이

겨울방학 일어연수

- 자격 : 대학 및 전문대학생 (일본어 초보자 가능)
- 기간 : 97. 1. 9 ~ 97. 2. 20 (6주)
- 마감 : 96. 12. 17
- 기숙사 원비 (남,여)

장기과정(97년 7월학기)

- 자격 : 고졸이상, 검정고시 합격자
- 과정 : 6개월 ~ 2년
- 마감 : 97년 3월 25일
-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
- 기숙사 원비 (남,여)

96년도 일본 명문대 최다 합격

- 동경대 대학원 : 3명
- 우수 4년제 대학 : 78명
- 와세다대학 : 5명
- 각종 전문대 : 57명

*아까몽가이는 대학(원) 및 전문학교 진학전문지도 학교

서울사무소 : (02) 723-1723-5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 경기빌딩 402호(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FAX (02) 723-1726

경희대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본어 연수 및 유학을 희망하신다면 국내수속비를 전액 감면 하여 드려요 일본내 유학생들이 내국생 같이 걱정들 드리지 않겠습니다